

HEREN

트루 프리미엄 멤버십 매거진 HEREN IS LOVE
JULY 2015



LIVING IN NATURE

영국 첼시 플라워 쇼&가든 산책
Meet the New York Jewellers
하와이,나오시마... 섬으로 떠난 여행



Rendez-Vous Night & Day watch
Carmen Chaplin, Actor and Director


JAEGER-LECOULTRE

Open a whole new world



ART
NOW
 editor
 정승혜

VENICE BIENNALE

ART IN VENICE

초여름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제56회 베니스 비엔날레. 오는 11월까지 계속되는 이 미술 축제와 더불어, 가까운 도시 밀라노와 바젤에서도 아트 신이 이어진다. 아트 순례자들을 위한, 놓치면 아쉬운 비엔날레 위성전시들.

올해 초여름부터 하반기까지 유럽은 아트의 물결로 넘실댄다. 한국인 최초로 은사자상 수상자를 배출한 제56회 베니스 비엔날레는 11월 22일까지 계속되고, 스위스 아트 바젤은 6월 16일부터 5일간, 밀라노 엑스포는 10월 31일까지 열리기 때문이다. 특히, 베니스 비엔날레의 경우 본전시와 국가관 전시 외에도, 훨씬 다채롭고 흥미로운 '위성전시'들이 가득하다. "위성전시, 즉 병행전시(Collateral Events)란 사실 비엔날레와 큰 관련 없이 비엔날레 '로고'를 구입해서 비엔날레 측이 인정한 '공식' 위성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병행전시 타이틀을 얻지 못한 전시들도 시내의 공간을 임대해 비엔날레 기간에 맞춰 열립니다. 따라서 비엔날레 타이틀을 얻었냐 아니냐만 다를 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트인컬처> 탁영준 기자의 전언이다. 실제

베니스를 다녀온 이들에게 놓치면 아쉬울 위성전시들을 추천받았고, 특히 많이 언급된 전시들만 소개한다.

Palazzo Grassi <Martial Raysse> 유럽 최고의 컬렉터로 손꼽히는 프랑수아 피노 회장의 컬렉션으로 운영되는 팔라초 그라시. 피노 회장은 구찌, 생 로랑 파리 등 굵직한 패션 브랜드와 크리스티 경매사를 소유하고 있는 '케링 그룹'의 대표로 40대 이후 3000점의 작품들을 모아온 인물. 팔라초 그라시에선 프랑스 신사실주의 미술가 마르샬 레스의 대규모 회고전(11월 15일까지)이 열린다. 작년 여름 퐁피두 센터에서 열린 전시의 후속 전시로, 남프랑스의 밝은 빛을 형광 도료, 플라스틱 제품, 네온관 등 인공 조명으로 구현한 '누보 레알리즘 작품'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 [web www.palazzograssi.it](http://www.palazzograssi.it)

Punta della Dogana <Slip of the Tongue> 역시 피노 회장의 컬렉션으로 운영되는 폰타 델라 도가나도 놓치면 아쉬운 곳이다. 산마르코 광장을 바다 건너에 두고 있는 벽돌 건물의 아름다움도 한몫하지만, 오는 12월 31일까지 열리는 <Slip of the Tongue>展도 '핫'하기 때문. 올해 덴마크관 대표 작가이기도 한 안보(Danh Vo)가 기획한 전시로 비엔날레 기간 중 국내외 미술인들 사이에 칭찬이 자자했다. 13세기 중세의





1 팔라초 그라시에서 열리는 마르살 레스의 대규모 회고전 풍경. 회화부터 네온 작업까지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2,3 중국 히말라야 미술관이 준비한 <산수>展. 위안순(Yuan Shun)의 인스톨레이션과 캘리그래피 아티스트 왕난밍(Wang Nanming)의 작품 등 다양한 중국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됐다. 4,5 리뉴얼한 프라다 파운데이션의 <Serial Classic> 전시 풍경. 6 팔라초 콘타리니 폴리냐크에서 열리고 있는 <단색화>展의 전시 풍경. 7 <proportion>展의 엘스워스 켈리(Ellsworth Kelly) 'Red, Yellow, Blue', 1963



Photo by Fabrice Seixas



그림부터 파블로 피카소, 지그마르 폴케, 그리고 내어리 바그라미언까지 40여 명에 이르는 다양한 작가들의 사진, 설치물, 영상, 조각 등 폭넓은 작품을 볼 수 있다.
[web www.palazzograssi.it](http://www.palazzograssi.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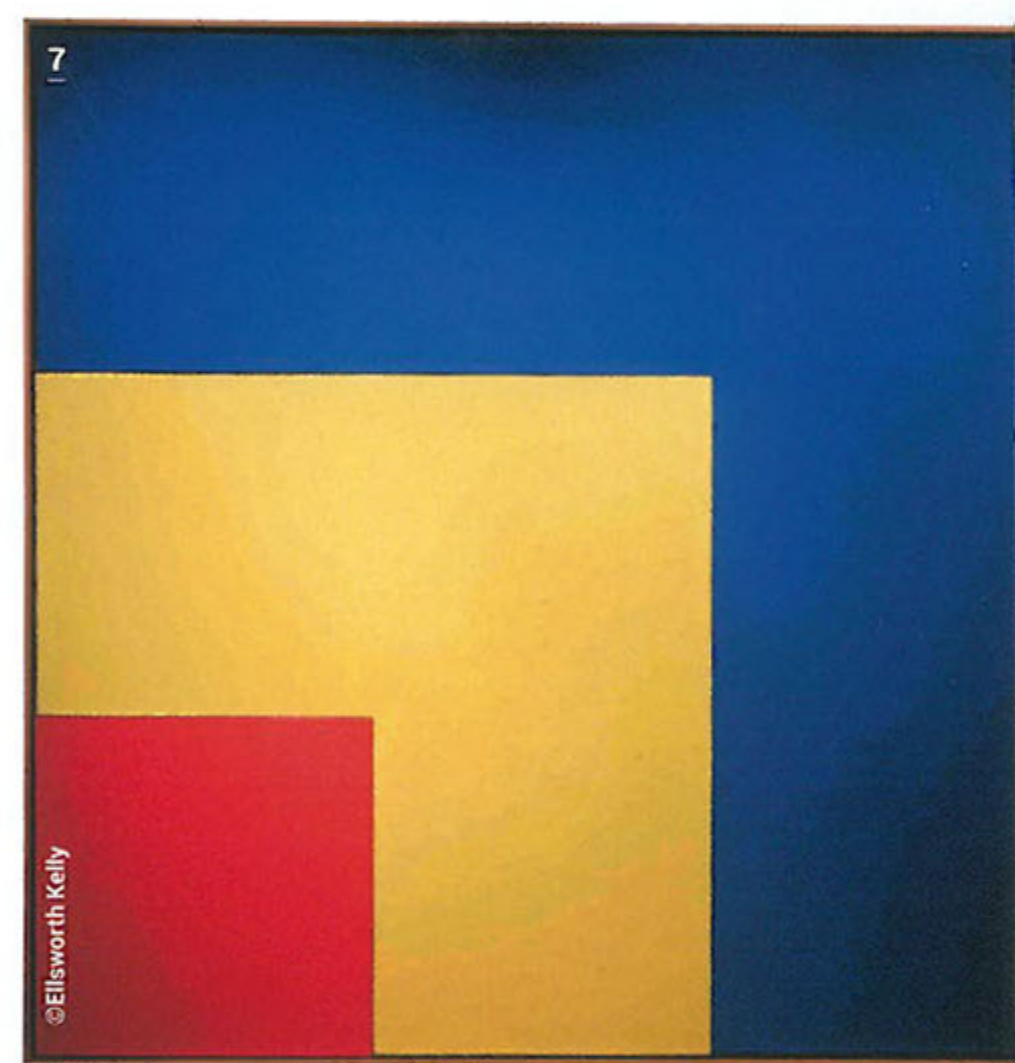
Palazzo Contarini-Polignac <단색화> 해외에선 '단색화' 열풍이 거세다. 그렇기에 국제갤러리가 후원하고 벨기에 보고시안 재단이 주최한 <단색화>展은 외국 관람객들의 관심이 뜨거운 건 물론, 비엔날레 재단의 심사를 통해 선발된 특별전이니만큼 국내 관람객들도 주목하는 전시다. 박서보, 정상화, 하종현, 이우환 작가와 작고한 김환기, 정창섭, 권영우 등 작고 작가의 주요 작품 70여 점이 소개됐다. 또 전시가 열리는 팔라초 콘타리니-폴리냐크는 15세기 초 르네상스 양식을 따른 베니스의 유서 깊은 건축물 중 하나로, 건물 자체의 분위기가 단색화 작품들 특유의 평온함과 잘 어우러진다는 평을 듣기도. 전시는 8월 15일까지. [tel 국제갤러리\(02-3210-9885\)](tel:02-3210-9885)

Palazzo Fortuny <Proportion> '비례(Proportion)'란 제목으로 11월 22일까지 열리는 팔라초 포르투니의 전시도 여럿 추천 목록에 올랐다. 사진가 배병우, 설치 작가 김수자, 파우스토 멜로티(Fausto Melotti), 산드로 보티첼리(Sandro Botticelli) 등 시대를 초월한 아티스트와 과학자, 건축가, 철학자 등이 각자의 작품에서 추구하고 녹여낸 '황금률'들을 다양하게 보여준다. 하이라이트는 12세기 고려시대 화병!
[web http://fortuny.visitmuve.it](http://fortuny.visitmuve.it)

Palazzo Ca' Faccanon <Humanistic Nature and Society (Shan-Shui)> 상하이 히말라야 미술관이 준비한 이 전시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 중국 작가들의

작품을 한눈에 돌아볼 수 있다. 3개의 테마로 나누는데, 'Peach Blossom Spring'에선 명나라 시대의 유명 화가 세스천(Xie Shichen)과 20세기 중국을 대표하는 화가 허하이샤(He Haixia)의 산수를 주제로 한 작품들을 볼 수 있고, 'Metamorphosis'에서는 니웨이화(Ni Weihua)의 사진과 비디오, 양장그룹(Yangjiang Group)의 설치미술 등을 선보인다. 국내 작가 이매리도 참여해 중국의 모던한 풍경 이미지들을 그려냈다. 8월 4일까지. [web www.himalayasmuseum.org](http://www.himalayasmuseum.org)

Fondazione Prada <Serial Classic> 베니스는 아니지만, 밀라노에 간다면 놓쳐서는 안 될 전시다. 리오픈한 프라다 파운데이션은 이미 지난 20여 년간 굵직한 아티스트들의 개인전을 개최해왔다. 이번엔 지난 5월 9일, 렘 쿨하스가 기존 가치의 존중이란 주제 아래 금박을 입히고 증축한 모습 때문이라도 많은 이들이 시간을 내어 찾은 곳이다. 8월 24일까지 열리는 메인 전시 <Serial Classic>展은 로마 고대 양식을 표현한 조각 70여 점을 전시한다. 재미있는 점은, 잃어버린 원본을 오마주해 다양한 방식으로 '복제'한 조각들을 선보인다는 점. 'Kassel Apollo'가 대표적이다.
[web www.fondazioneprada.org](http://www.fondazioneprada.org)



8 폰타 델라 도가나에서 열린 <실연>展. Robert Manson의 'Manson(circa 1950)' 시리즈 중 일부. 9 프란체스코 칸델로로(Francesco-Candeloro)의 인스톨레이션 작품 역시 <Proportion>展에 출품됐다.

